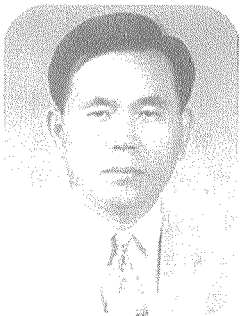


첨단기술 개발 때마다 문제되는 고관세 부담



박 재 인
(본회 진흥담당 상무)

지금 우리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나날이 오르고 있는 생산 비용 만큼 원가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높은 기술수준의 이른바 첨단기술 제품을 개발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 지식 기반의 사회가 된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 21세기에는 고비용 생산구조로 인하여 첨단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아니면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에게 내려진 소명은 오직 첨단기술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내일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첨단기술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데는 그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와 제조장비 같은 자본재의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초기에 수입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막대한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선진국과의 경쟁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은 경쟁의 상대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인 관계로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은 그들에 비해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지게 마련인데 여기에 그들에게 없는 관세까지 부담하게 되니 어떻게 그들과 초기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경쟁국인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소재와 제조장비를 이용해 첨단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개도국은 먼저 첨단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해야만 비로서 그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와 제조장비의 수요가 창출되어 국산화하는 순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반도체 DRAM 등의 첨단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자본재 수입에 따른 고관세의 부담으로 관련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최근에는 앞으로 성장을 주도해 나갈 TFT LCD 개발생산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첨단기술 제품을 어렵게 개발하고도 투자 및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DRAM을 개발, 생산할 때에는 업계의 요구로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고,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제를 활용해 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업계의 투자와 개발을 획기적

으로 촉진시켜 주었다.

우리 반도체 DRAM 산업이 단기간에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된 데에는 기업인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한 공이 무엇보다 컸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 경감 등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당시 본회와 우리 업계는 반도체 DRAM과 같은 첨단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념하에 수백종에 이르는 원부자본재와 시설재에 대해 하나하나 견본품 또는 카탈로그를 구해 산업별로 국내생산 불가의 확인을 받아 관세경감을 위해 골몰했던 일이 었그제 일처럼 새롭다. 오직 이것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지만 당국의 많은 배려가 있어 피로는 커녕 성취감에서 힘이 더 솟는 듯 했다.

이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은 청와대의 오명 비서관, 홍성원 비서관, 정홍식 과장, 상공부의 이동훈 국장, 신국환 국장, 최성규 과장, 재무부의 변형 과장, 엄낙용 과장 등으로 이분들께 우리 업계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공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보며, 아울러 이때 업계 인사로는 삼성전자 박신용 과장의 실무적인 노고가 컸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TFT LCD의 자본재의 경우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자국산을 사용해 관세 부담의 소지가 전혀없고 대만 또한 대부분의 관세가 0세율로 그 부담이 거의 없는데 비추어 우리나라는 관세에 교육세 까지 부가해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투자확대에 큰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TFT LCD의 경우는 제조공정이 박막트랜지스터(TFT)를 제조한 후 여기에 컬러 필터 기판을 접합시키고 그사이에 액정을 주입, 봉합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TFT는 명백한 반도체 소자의 일종임에도 이것이 LCD 제조공정속에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정보통신국제관련협정(ITA)에 의한 반도체장비로서 0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다.

현재 관계당국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일본, 대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은 하루속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세계시장 선점에 그만큼 유리하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디스플레이 산업은 정보화사회 혁명으로 국내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 반도체 DRAM 등과 함께 앞으로 21세기에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고관세 부담의 문제가 반도체DRAM과 TFT LC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앞으로 고비용 생산구조는 계속 심화될 수 밖에 없어 그 대응 방안으로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도국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차제에 첨단기술 제품 개발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일괄해 초기 일정기간 동안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해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것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세 감면 조치와도 서로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믿는다. 유망하면서 개발이 어려운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초기에 관세경감은 내일의 산업 발전을 통해 고용증대, 국민소득 향상, 재정확대 등 시너지 효과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반도체 DRAM산업 등을 통해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